

# 지역특화 식량제품 수출 돕는다

### 농진청, 전국 10개 시군서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 전북은 고창서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 유망 식량작물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품질이 우수하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식량작물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 및 업체에게 관련 정보와 수출 절차 및 규정을 제공해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은 고창(보리·가공품) 등 전국 10개 시군지역에

서 진행된다. 컨설팅 대상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지역 특화 수출 유망 식량작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대상별로 기술 수준과 수출 경험 등을 고려해 ▲상품 생산 및 가공 ▲수확 후 관리 ▲해외 시장 정보 및 시범수출 등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진청은 수출이 유망한 상품을 발굴하고, 미국으로 시범수출 하기 위한 미국 수출 설명회 및 심층 컨설팅도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식량작물 가공업체의 가공품을 1차 검증한 후 유망 가공업체를 선별해 수출 시장을 겨냥한 성분, 맛, 포장, 선적 등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현지 유통업체를 초청해 수입국의 소비 취향에 맞는 수출 상품을 적극 발굴 할 계획이다.

식량작물 제품 수출에 관심 있는 농가 및 업체는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경북 영주에 위치한 업체의 고구마 쿠키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인 입맛에 맞춰 개발된 고구마 쿠키는 지난 1월 1,200만 원 규모가 수출됐으며,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준용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현재 수출 상품은 해외 한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범수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우리 농산물, 어디서 사서 어떻게 드세요?'

### aT, 농산물 구매·활용 레시피 UCC 공모전 실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우리 농산물 구매·활용 레시피'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자신만의 참신한 요리 레시피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이나 팀(최대 4인)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농산물 소비촉진과 활용방안 공유를 위해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구매과정부터 조리과정까지 모두 영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제출된 UCC 영상은 aT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조회수,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분상 8명, 참가상 20명 등 총 28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은 aT 공식 블로그(blog.naver.com/gt22ma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전주첫마중길지점 이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고객편의 증진과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홍보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우이동지점을 '덕진구 백제대로 823'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전주첫마중길지점'으로 변경했다. 왼쪽부터 박연옥 한살어패럴 대표, 이영길 (유)풍남건업 대표, 전주시 김승수 시장,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전주첫마중길지점 이호상 지점장, 전북은행 최강성 노조위원장, 법무법인 보인 이관욱 변호사,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 동아리·동호회 모임회비,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 전북은행, JB모임통장 출시 회비 사용내역 알리기 어려운 수많은 모임의 현실 반영 스마트뱅킹 통해 가입 가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1일 동아리, 동호회 등 각종 모임회비를 간편하게 관리 할 수 있는 'JB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JB 모임통장은 다수가 함께 쓰는 모임통장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각종 모임회비를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시됐다. 모임의 총무는 회비 사용내역을 일일이 알리기 어렵고, 회원은 회비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기 어려워 답답했던 수많은 모임의 현실이 반영됐다. 총무 역할을 하는 '모임주'는 전북은행 전자금융을 가입하고 전북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임주는 개인계좌로 모임통장을 개설하면서 모임 구성원을 전북은행 스마트뱅킹 모임멤버 초대하기를 통해 모임회비를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계좌가 없는 구성원도 전북은행 스마트뱅킹만 가입하면 모임통장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JB 모임통장은 전월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당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 수수료, 타행 CD/ATM 현금인

출 수수료, 출금내역통지서비스(SMS)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외화 환전(현찰)시 환율 우대(USD,JPY,EUR)를 70%까지 우대해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동아리, 동호회 활동을 즐기는 고객들이 증가하여 JB모임통장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더욱 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전북은행 스마트뱅킹 또는 전북은행 모바일 Web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對日 100대 소·부·장 품목 對세계 338개로 확대 관리"

### 성윤모 산업부장관,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대(對)일본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공급망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11일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업별 전략을 듣고 글

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불산액,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한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품목의 경우 재고량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으로 늘려 재고 보유 수준을 기존과 비교해 2~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해 대체 수입선 마련에 성공했다. 아울러 13건의 인수합병(M&A)과 734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

에 대한 국내 생산 역량도 확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에 여전히 고충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지원과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민감 품목 관세 철폐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석·박사급 전문 인력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기존 일본 수출규제 품목 159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도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뉴시스

##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공제 기금' 과 함께

###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촉진 이벤트 이달부터 7월까지... 추천 통해 관광상품권 지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 기금')의 가입 확산 및 제도 홍보를 위해 5~7월까지 3개월 간 '공제기금 가입촉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공제기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추천을 통해 총 100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인터넷으로 가입한 전일에는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신규가입자가 기존에 공제기금 이용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우 기존 고객도 1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공제기금이 널리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공제기금

이 시중 금융기관의 보완재로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1984년 출범해 가입자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제도로,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자(유형업종 제외)이며,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4회차 이상 납부시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납입 부금에 대해 해지하지 않고 만기 후 유지 시 만기이자(현행 1.75%)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과 저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다. /김윤상 기자

## 권익위와 손잡고 고충 해결

### LX, 29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와 함께

### 전주·김제·순창·장흥 등 호남 6개 시군 방문

### 지적(地績) 관련 행정문의·각종 생활민원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장선다.

LX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와 함께 13일부터 29일까지 호남지역 6군대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과 지적(地籍)제도에 관한 각종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상담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3월 예정이었던 이번 이동신문고는 순창군과 전주시, 김제시에서 이달 13일부터 사흘간 차례로 운영되고, 27일부터 사흘간은 전라남도 장흥군과 광양시, 담양군을 차례로 찾는다.

운영 장소와 시간은 각 시·군청에서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LX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해양수

산부, 금융감독원 등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X는 지적관련 학식과 현장 측량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이번 신문고 상담원으로 선정해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민원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신문고에 매년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토지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X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26회에 이르는 이동신문고에 참여해 국민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지역 농산물 구매로 농가 판로 지원

### 국민연금, 운주노인복지센터 등 무료 급식에 식자재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1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농가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도시락 식자재를 구매했다.

전북환경연합사업단(대표 이순범)을 통해 구매한 식자재는 원주 운주노인복지센터, 고창 원광노인복지센터, 임실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돼, 무료급식소 폐쇄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도시락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되는 도시락은

전북지역 어르신 약 200여 명에게 총 10회 제공된다.

이번 지원은 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현물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건강의 위협에서 경제적 재난으로 번진 이 때,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 및 어르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도-경진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전문교육 지원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에서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하 청년혁신가) 관련 해당 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청년혁신가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북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이 될 수 있게 도와, 우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청년이 업무

관련 각종 교육(온·오프라인 및 자격 시험 응시 등)을 직접 선택해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업무 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규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진행한다. 해당 지원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2차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전북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의 참여 사업장 모집은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